

국제유가 상승 대비 유류비 부담 완화 나선다

농협,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농협주유소 할인 지원 50억원 등 총 300억원 규모 투입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협이 자체 재원 300억원을 투입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농협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면세유와 주유소 할인 지원을 통해 유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과 농협주유소 할인 지원 50억원 등 총 3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농가의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정부의 불가안정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유 할인 지원액 250억원은 앞으로 한 달간 농민들이 사용하는 면세유에 적용된다. 할인 대상 물량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 수준이며, 경유·등유·휘발유 순으로 농업 분야 사용량을 고려해 차등 배정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협이 자체 재원 300억원을 투입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지원 재원은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마련된다.

주유소 할인 지원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원이 투입된다.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리터당 200원 캐시백 할인을 받을 수 있다. NH페이 사전

응모 시 최대 할인금액은 1만원이다.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는 최근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시장 평균 소비자보다 휘발유 88원, 등유 118원, 경유 14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농협은 이번 300억원 지원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와 소비자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번 유류 가격 지원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협은 불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할인 공급하고 영농자재를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하는 등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9일 남원농협을 방문해 '신상품 1호 가입자'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

“치매 치료 대비는 선택 아닌 필수”

NH농협생명 전북총국, 남원농협서 '보장보험 1호 가입 감사 행사'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이 남원농협에서 신상품 1호 가입자에 대한 감사 행사를 열고 치매 보장 보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9일 남원농협을 방문해 '신상품 1호 가입자'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년 신상품 1호 가입자인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신상품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1호 계약 상품은 'NH 올원 더플러케어안심치매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무배당)'으로 치매 보장에 특화된 상품이다. 치매생활 자금특약 2종(종합형)에 가입하면 경도치매 진단 시에도 최대 10년 간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또 치매 진행 단계에 따라 중등

도와 중증 치매 진단 시에는 생활 자금을 종신까지 보장해 장기적인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최경도치매(CDR 0.5)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레팸비 등 표적약물 치료 보장을 포함해 최신 의료 트렌드를 반영했다.

박기열 조합장은 "고령화 시대에 치매 치료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조합원과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수 전북총국장은 "신상품 1호 가입이 남원농협에서 이뤄져 매우 뜻깊다"며 "치매 환자 100만 시대에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생명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기능대회 입상 청년, 전북 중소기업 취업 시 최대 2400만원 지원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우수 기능기술을 보유한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자치도와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능대회 입상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된 참여자에게는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2,4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청년 기능인재의 지역 정착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

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능경기대회와 상업경진대회, 영농학생축제 등 각종 기능대회에서 금상·은상·동상·우수상·장려상에 입상한 인력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3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기술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모집 인원은 2명이며 접수 기간은 3월 20일까지다.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음 참여자 모집은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063-280-1007)로 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북중기청(청장 전세희)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해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특별공급이 예정된 단지는 북전주 광신 프로그레소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일원에 조성된다. 전북중기청 추천 물량은 확정 9세대와 예비 45세대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4㎡A 8세대(예비 40세대), 84㎡B 1세대(예비 5세대)가 배정됐다.

신청 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주

택형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추천 대상자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재직 기간 외에도 제조 소기업이나 뿌리산업 근무 여부, 기술·기능 인력 자격증 보유, 수상 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가점 요소로 반영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중소기업인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익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55억원 금융지원

전북은행이 익산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5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나선다.

전북은행은 익산시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익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에 사업장을 둔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천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전북 혁신성장기업 육성 위한 기술개발 지원

'혁신성장R&D+ 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R&D+ 사업' 1차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전북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도내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R&D+ 사업은 전북 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조선·항공, 농건설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탄소융복합소재, 바이오산업, 디지털산업,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전북의 신(新) 혁신성장 산업 10개 분야다. /오상근 기자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유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자유공모형, 구매조건부형, 투자유치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자유공모형은 최대 1억 원, 구매조건부형과 투자유치형은 최대 1억2천만 원 이내에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9일부터 오는 4월 10일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 안내 게시판이나 R&D종합정보시스템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